

# 슬픈 단기방학...우린 학교로 갑니다

## 광주 결식아동 등 4,882명 갈 곳 없어 시교육청,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내 초·중학교 220곳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단기방학(일명 효도방학) 때 학교에 나와야 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은 4천882명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단기방학 중 학교 외사를 밝힌 학생은 초

등학교 95곳의 4천158명, 중학교 30곳의 724명 등 모두 4천882명. 이는 광주시내 전체 초·중학생 19만9천에 2.4%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가정 또는 소외계층 가정의 사정상 단기방학 때도 딱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단기방학 기간 동안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 반의 담임교사는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정한 단기방학 기간은 6~9일 나흘간이지만,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12일) 등을 포함했을 경우 실제 쉬는 기간은 4~12일까지 9일에 달한다.  
단기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에게는 ▲컴퓨터 세상 ▲전통악기 체

험교실 ▲재미있는 한자교실 ▲풍선아트 ▲영어문화 체험캠프 등이, 중학생에게는 ▲생태환경 체험활동 ▲천체관측 체험활동 ▲독서로 찾아가는 삶의 지혜 ▲생활영어 교실 ▲진로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단기방학 중 등교하는 학생 4천882명 중 14.9%인 726명은 저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광주시청과 5개 구청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다운 마을 함께 만들어요” 광주 여성의 전화가 주관한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정다운 마을 캠페인'이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에서 열렸다. 캠페인에 참석한 주민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휴면예금 4천만원 꿀꺽 장성군 농협 직원 내사

전남도 내 한 농협 직원이 고객들의 휴면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장성경찰은 28일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장성군 농협 직원 A(31)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휴면계좌로 분류된 김모(여·69)씨의 예금계좌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6개

계좌에서 모두 4천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난 17일 농협 측에 항의하자 A씨가 “실수로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며 둘러대려 했으나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농협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농협 측의 고발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순천만 '명승' 된다

### 문화재청 지정 예고

순천만이 명승(名勝)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9일 순천만을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300만여㎡에 이르는 순천만은 남해안 고흥반도와 여수반도가 에워싸고 있으며 연안 습지가 넓게 발달해 대규모 갈대밭과 염습지, 갯벌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특히 붉은색을 띠는 칠면초 군락과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오르

는 풍경, 일몰 등이 장관으로 2006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최우수경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밖에 갯지렁이와 조개류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도랑부리저어새 등 200여종의 새들이 이곳을 찾는 등 독특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순천만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 절차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7월부터 인상

### 광주~서울 왕복 3만5천원 예상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7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천안~논산 고속도로 담당자들과 통행료 조정폭 및 조정시기를 논의한 결과 오는 7월 1일부터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들 민자고속도로는 실시협

약에 의거해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물가 인상분만큼 올려야 하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인상 시기를 7월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해 천안에서 논산까지 가면 8천원의 통행료를 내야하지만, 7월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면 8천원대 중반

으로 통행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왕복 기준으로 이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주~서울 통행료는 7월부터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2006년 이후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함에도 물가 관리정책에 의해 통행료 인상이 당분간 억제될 전망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빨래 잘 마르겠네** 4월 29일 (음 3월 24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으며 맑겠습니다.

광주	맑음	12~26°C
주요도시	맑음	12~23°C
안동	맑음	12~21°C
부산	맑음	11~23°C
대구	맑음	8~26°C
대전	맑음	8~26°C
인천	맑음	8~25°C
서울	맑음	7~25°C
충청	맑음	9~24°C
경남	맑음	8~26°C
전남	맑음	10~23°C
전북	맑음	9~25°C
제주	맑음	11~26°C
충청	맑음	8~26°C
경남	맑음	10~19°C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8:05 썰물 < 00:34  
목포 밀물 < 20:16 썰물 < 14:18  
여수 밀물 < 03:26 썰물 < 10:28  
여수 밀물 < 16:07 썰물 < 21:57

▲해돋이 05:44 ▲해질 19:16 ▲달돋이 01:52 ▲달질 12:26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수)	5(목)	2(금)	3(토)	4(일)	5(월)
날씨						
최저/최고	13/27	13/27	14/28	15/29	14/27	14/26

## 야간 등 범죄 취약 시간 지구대 근무 인력 확대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야간 등 범죄 취약 시간에 지구대 근무 인원을 늘리는 근무시간 조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평일 낮 시간대 위주로 돼 있는 지구대장과 지구대 관리요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야간과 휴일에 근무강도와 현장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구대장은 주중 치안 수요가 많은 요일에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탄력근무를 하게 되며 평일에 2차대, 휴일에 24시간 근무 1차대와 주간근무 1차대 등 한 달에 4차례의 당번근무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 유기농 채소 속 생쥐 미국 야생쥐 가능성

지난 3월 미국산 유기농 냉동채소에서 발견된 생쥐의 '국적'은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3월말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수입한 '유기농 야채믹스 배지타발' 제품에서 발견된 생쥐 추정 이물물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의 유전자 미국 북서부 5개 주에 걸쳐 서식하는 '식충목(目) 딱지처(科)'에 속하는 '뒤쥐'의 일종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뒤쥐는 주로 곤충을 잡아 먹고 사는 종류로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마음 밖에서 따로 진리 찾지 말라”

### 법전 중정 봉축 범어

“마음 밖에서 따로 진리를 찾지 말라.”  
오는 5월 12일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28일 봉축범어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범어를 통해 “부처님이 세상에 와서 무명(無明·잘못된 의 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상태)과 탐욕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

에서 대비(大悲)를 일으켜 해탈을 얻게 하여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전 스님은 “부처를 이루는 길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모든 진리가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YCHE CHAIR**

Anyche  
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 - 전문 생산업체 - 무한대의 가능성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워터 새문채 단정하였습니다

“스카이워터” OPEN

예약상담 10821262-2278